



UN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UNTFSSSE))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UNTFSSSE 성명서 2020년 6월

번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이것은 무엇보다 연대를 필요로 하는 인류적 위기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

UN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UNTFSSSE)*)가 작성한 브리프 노트(Brief note)
2020년 6월

UN사회연대경제TF에 대하여

UN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UNTFSSSE)*)는 UN 시스템 내외부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가시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F회원 (*members*) 및 옵저버 (*observers*)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활동을 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관련 사회연대경제기업·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 사회연대경제 지식 활성화 및 네트워크 공고화
-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정책 환경 조성 지원
- 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제적 노력을 조직화하고 파트너십 구축·강화

UN사회연대경제TF의 전체 회원 및 옵저버 기관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unsse.org/>

문의

총괄(*Chair*): Vic Van Vuuren (ILO), vanvuuren@ilo.org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 Valentina Verze (ILO), verze@ilo.org

1. 코로나19: 삶과 경제, 지구에 미치는 영향

약 4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6백만 건을 넘어섰다.¹ 이 같은 팬데믹의 기세 속에서 많은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사람들의 이동뿐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 활동에 대한 전례 없는 규제가 시행되었다. 응급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와 증가하는 사망자 수가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팬데믹은 전세계의 공급망과 국제 무역을 붕괴시키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약 100개국 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사람들의 이동과 관광 흐름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²

작업장이 문을 닫은 나라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는 22억 명을 넘어선다. ILO 추산에 따르면, 4억 3600만 개의 사업체(독립 취업자(independent workers)(역주:고용인(employers)과 자영업자(independent workers without employees) 3억 8900만 명 포함)가 고위험 업종(제조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도소매업)에 분포한다. ILO는 전 세계적으로 3억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역주: 2020년 2/4분기)³.

현 위기는 경제와 노동 차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사람들, 여성과 남성, 기업가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가족, 일과 사업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지켜보고 있다.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성, 이주민, 강제실업, 원주민, 장애인, 소외된 지역사회, 청년, 비공식 경제부문 노동자와 불안정한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사업 및 비필수 활동 폐쇄와 같은 봉쇄 조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집단 일부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비공식 경제부문에 속한 약 16억 명의 노동자들은 봉쇄 조치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또는 피해가 가장 큰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발생 첫 달에 전 세계 비공식 경제부문 노동자의 소득이 6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감소율은 8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역주: 2020년 2/4분기)⁴.

이 같은 경제 위기는 많은 이차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음식과 영양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다. 일당을 받는 비공식 일용 노동자들은 이제 그들의 집에 격리되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음식을 살 수 있는 수입이 더 이상 없다. 이는 저개발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자료들은 선진국의 중하층까지도 기본적인 식량을 얻기 위해 푸드뱅크(food bank)(역주: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음식을 얻는 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인류가 코로나19에 직면하고 있지만, 다양한 차원의 기존 불평등이 코로나의 영향을 차별화하고 있음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동시에 국가 내부의 불평등 및 국가 간의 불평등 역시 위기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조건들이 취약계층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근거도 존재한다. 이들의 경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낮고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가능성은 더 높다.⁵

또한, 개인보호장비, 전자제품, 의약품과 같은 위험 폐기물의 급증, 대량 폐수, 세제·소독제·항균제의 엄청난 사용 등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많은 요인들로 인해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다.⁶

2. 포스트 코로나19: 뉴 노멀(NEW NORMAL)이 아닌 베타 노멀(BETTER NORMAL)로

팬데믹은 우리 경제의 많은 취약성을 노출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한 반면 회복력, 혁신,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일자리의 양적·질적 부족과 불평등 심화, 지구 온난화와 이주, 현 산업 식품 시스템의 지속 불가능성 등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제들은 의료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크게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래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서 발생한 최악의 위기를 묘사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일단 이 의료 비상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상황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해답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UN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는 더 나은 방식으로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08 금융 위기는 강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 가장 적은 피해를 입고 그 영향으로부터 가장 빨리 회복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⁷

지금과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타적이고 지속불가능한 발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사람 중심적이고 지구에 친화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비즈니스 관행을 재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재기하고,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에서 전이되는 미래의 인수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 건강한 지구는 매우 중요하다.⁸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 교육,

위생, 사회적 보호와 같은 양질의 서비스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위기에 대해 보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핵심이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에 농식품 기업 및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⁹ 영구적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의 도전, 디지털 이행과 인구변천, 그리고 이것이 노동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은 혁신적인 사회정의 및 양질의 삶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구현의 핵심이다.¹⁰

3. 사회연대경제: “사람 중심적이며 지구 친화적인” 회복을 위한 핵심주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하고 보완적인 유형의 생산 조직 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창출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¹¹ 은 그 특성상, 노동이 생산의 핵심 전략요소가 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이는 대인 및 사회 서비스에서 더욱 그렇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보다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다. 이런 민주적 거버넌스는 대내외적으로 작동한다. 민주주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참여와 관여를 촉진함으로써 내부적으로 행사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복수의 목소리가 공공 영역에 전달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존속할 수 있고, 그리하여 집단과 공동체의 해방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성은 팬데믹에 의해 발생한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개인 자유의 퇴보를 낳는 경찰국가에 대한 의존 필요성을 없애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들이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¹²들은 사회보건보호, 식품 및 예방 의료장비 제공, 금융 지원, 교육 및 훈련, 인식 제고, 문화와 예술¹³, 지역사회 구호 조직,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 전환, 공급망 재지역화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나 회복기에 사회연대경제가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지 여부는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속에서 공공 정책 및 회복 조치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April 2020
9 FAO, *Adjusting business models to sustain agri-food enterprises during COVID-19*, 6 May 2020
10 Guy Ryder, *Better normal, not new normal*, 30 April 2020
11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바는 없지만, 이 문서는 ILO 지역 컨퍼런스 “사회적경제: 글로벌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의 대응”, 요하네스버그, 2009)와 UNTFSSSE 성명서(2014)에서 사용한 정의를 사용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기업·조직은 재화와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며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 재단, 사회적기업과 같은 조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12 ILO, *Cooperatives and wider SSE enterprises respond to COVID-19 disruptions, and government measures are being put in place*, April 2020
13 Caruana V. and Nogales R., *Stakeholder Brief 5: Unlocking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culture and the arts through social enterprise*, 2019

취약 계층의 기본권 접근성 증진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누구도 낙오시키지 않는다”는 핵심 약속을 지키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보편적인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실로 기획, 보호, 임파워먼트(혹은 역량강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이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가 적극적인 시민권, 참여민주주의, 다원적 경제구조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손을 내밀 때 더욱 필요하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공동 행동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상호 지원을 통해) 보호를 확대하며, (회원 기반의 민주적 관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기반 사업체로서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고용과 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농을 기업적 영농의 가치 사슬로 발전 및 연계시키는 한편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보호를 통해 농촌 노동자들의 생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협동조합은 농촌 노동자, 특히 여성과 원주민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증폭시킴으로써 그 대표성을 증진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고용과 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민주주의와 행동 주체성 강화의 여건을 조성하며, 리더십 및 경영 경험 확대를 지원하는 등의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¹⁴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을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해 온 역사적 성과를 보여준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전통적 기업에 비해 장애인을 훨씬 더 많이 고용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장애인들이 낙오되거나 “추가적인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솔루션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전 세계 4억 명의 인구는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보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 중 매년 1억 명은 의료비의 자체 부담으로 극도의 빈곤에 내몰렸다.¹⁵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 기반 접근법은 특히 빈곤 지역을 다룰 때¹⁶ 보건 증진 및 질병 예방의 “최적 기준”으로 여겨졌다. 보건 부문의 이러한 기업 모델과 공제조합의 증가는 76개국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들 나라에서는 3,300개 이상의 보건협동조합이 150억 달러의 총 매출을 기록했다.¹⁷

14 ILO, *Cooperative &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responses to key issues in the report of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2019
15 WHO and the World Bank, *Trac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2017 global monitoring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17
16 Phinse Mappalakayil & al.,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in noncommunicable diseases: A narrative review*, 2018
17 UNDESA, *Healthcare cooperatives: a reliable enterprise model for health and wellbeing*, 2018

1 WHO, Dashboard available on: <https://covid19.who.int/> Last access 3 June April 2020
2 UNDESA,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April 2020 Briefing*, No. 136, 1 April 2020
3 ILO,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Third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29 April 2020
4 ibid.

5 UNDESA, *Policy Brief #65: Responses to the COVID-19 catastrophe could turn the tide on inequality*, 1 May 2020
6 UNEP, *Working With the Environment to Protect People UNEP's COVID-19 Response*, April 2020
7 António Guterres, *Secretary-General Remarks on COVID-19: A Call for Solidarity*, 19 March 2020
8 UNEP, *Working With the Environment to Protect People UNEP's COVID-19 Response*,

지역 차원의 혁신적 솔루션 제공

대부분이 회원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며 지역경제 개발 및 지역 거버넌스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일련의 위기 회복 조치에서 양질의 고용 기회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의 사람 중심적인 개발에도 유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커다란 혁신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의 필요나 기회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의 의료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및 기업들은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냈다. 사회연대경제는 공중 보건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으며 회원과 그들이 서비스하는 지역사회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지역 보건” 모델에 부합하는 보완적 보건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협동조합들은 에이즈 감염자의 보건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으며 정부는 공공 보건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활동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¹⁸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장려 속에서 공급망 단축과 단순화, 가능한 경우 생산과정의 재지역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들은 지역 및 지방 경제에 뿌리를 둔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의 일부이다. 그들은 이러한 재지역화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위기는 고도로 분절화된 공급망과 적시 배송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세계화 패턴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 가용한 개인 보호장비의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 기업, 시민들은 이 시스템의 취약성을 깨닫고 많은 부문에서 경제가 다시 지역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역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세계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전 세계의 여러 지역사회에 도전이 되는 이슈들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고 상호학습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사회연대경제 솔루션과 우수사례에 대한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영향력은 남남 및 삼각 협력을 통해 확장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입증되었다. 남남 및 삼각협력은 연대와 무조건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지역적 가능성과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연대경제의 관행들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하려면 사회연대경제의 지식, 기술, 자원 및 전문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사람 중심적이고 연대에 기반한 지역내·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지원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세계의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은 팬데믹과 환경 파괴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환경적 측면에서 ‘한줄기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였다.¹⁹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접근법은 자연을 상품화하고 그것에 사적 재산권을 할당하는 과정, 기술적 해결 및 ‘그린 워싱(Green-Washing)(역주: 상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광고가 허위 및 과장되어 친환경 이미지로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과 빈번하게 관련되며, ‘통상의 비즈니스 방식(business-as-usual)’과 결합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등한 분배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지 않고 오히려 회원들과 지역사회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가 주도하거나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기후변화와 빈곤 감소의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다.²⁰

특히 지역사회 농업지원(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야채 박스 제도(vegetable box scheme)(역주: 지역 농산물 직배송 서비스)와 같은 “농장 직배송 서비스” 및 지역 비대면 픽업 관행들을 비롯해 사회연대경제에 기반하는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이 많은 국가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직접 키우기’ 제품이 새롭게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형 생산자-소비자 가게도 최근 몇 년 사이 번창하고 있다. 이같은 지하급수적인 성장은 새로운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의 형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에서 기업 포획(corporate capture)(역주: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 정치인과 관료들을 설득해 기업에 유익한 각종 규제정책을 이끌어내는 것) 현상 또한 생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접근법 속에서 대량 배출 및 폐기물 생산, 생태계와 천연자원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수반되는 고도의 자원 고갈형 선형 시스템에서 탈피해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도 고용 기회와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덜 소모적인 순환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들은 순환경제 부문에서 수많은 활동에 착수했다.²¹

19 UNEP, Working With the Environment to Protect People UNEP's COVID-19 Response, April 2020
20 UNTFSSSE, A Position Paper by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2014
21 Circle Economy, Jobs & Skills in the Circular Economy: State of Play and Future Pathways, 2020

경기대응 ”교정수단”으로서의 역할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전통적인 부문뿐 아니라 신흥 분야²²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비공식성과 착취²³의 위험이 있는 새로운 직업들에 하나의 준거들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이 지닌 회복력은 광범위한 연구²⁴, 특히 협동조합 은행²⁵의 사례들에 의해 입증된다.

경제 위기시의 회복력에 관한 많은 사례가 입증하듯이, 고용 유지와 관련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한 역할은 경기대응적 성격에 관한 많은 문헌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다.²⁶ 예를 들어, 경제 위기 및 이후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실패로 인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회사를 매수하여 이를 노동자 소유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층의 구조적 사회·경제 위기들이 드러나는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실항의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은 실항민과 수용 지역사회 양 측과 협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확대된 경제적 기회에 접근하게 한다. 또한 쌍방에게 혜택이 확대되는 통합적 대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평화를 조성하고 노동에 종사하는 데 핵심적이다.²⁷

4. 우리의 요구

2030 의제의 준거들 속에서 다자주의와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고려할 때 「누구도 낙오시키지 않는다」라는 정신에 부합하는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을 포용하는 것은 결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UNTFSSSE 회원과 옵저버 기관들은 코로나19 위기²⁸ 속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행동, 주제, 조직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지식을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정부의 행동을 촉구한다.

정부는 재건 대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위기의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즉각적인 인도적 대응에 중점을 두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더 강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을 강화하고, 빈곤층을 최소화하며, 젠더 불평등을 감소하는 동시에 더 건강한 환경, 더 지속가능한 로컬 푸드, 더 회복력 있는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22 ILO,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the Future of Work, 2017
23 ILO,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no 12 Waste pickers' cooperatives and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organizations, 2018
24 ILO,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 2009
25 ILO, Resilience in a downturn: The power of financial cooperatives, 2013
26 ILO,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the Future of Work, 2017
27 ILO, Mapping responses by cooperatives and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organizations to forced displacement, 2020
28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http://unsse.org/sse-responses-to-covid-19-information-from-the-members-and-observers-of-the-untfssse/>

정부는 대응 및 회복 조치의 설계와 시행에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을 포함시켜야 한다.

위기 이후의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빈곤 완화, 개발 및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양책을 승인할 때 정부는 사람과 지구 중심의 대안적 사업모델을 포함하고 추진하는 다원적 경제로 도약할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2030 의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변혁적인 비전을 추구하고 ‘통상의 비즈니스 방식(business as usual)’을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순환경제, 농업생태²⁹, 사회혁신, 공급망 단축, 식량안보³⁰ 등의 쟁점 및 지역화폐와 공공재 관리 등의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³¹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보다 나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략적 사회경제 부문의 공공 정책을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복잡성은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나아가 다양한 차원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을 요구한다. 사회연대경제는 그 특성으로 인해 종종 민간 기업이 공익 영역에서 활동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은 이 위기를 더 잘 극복하고 위기를 근본적 변화의 기회로 만들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매우 필요한 변혁을 가능케 하는 적정하고 혁신적인 공공 정책 설계의 핵심이다.

정부는 다원적 경제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정책을 장려하고 보완적 복지 발전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촉진하고 사람들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두는 전략 부문 투자는 투자 다변화 및 다양한비즈니스 모델의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개발과 실행을 동반한다. 이런 면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은 변혁적 개발 의제의 실현에 결정적이다. 인간 중심 의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GDP 보완 지표가 필요하다. 복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등과 관련된 보완적 발전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보다 나은 방식의 보다 신속한 회복 및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장기적 발전 모두에 꼭 필요하다.

29 FAO, The 10 Elements of Agroecology, 2019
30 UNCTAD, Trade and environmental review: Wake up before it is too late, 2013
31 ILO,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2019

18 ILO, Working Paper No. 19 - The cooperative model for the delivery of home based care services for people living with HIV, 2010

